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145-152)

God's word and prayer

(Psalm 119:145-152)

시인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애원하며, 구원해 주신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합니다. 때로는 원수로 인해 어려움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e psalmist appeals to God for salvation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As he does so, he makes a vow to keep His word. The psalmist may have difficulties because of his enemies, but God promises to always be with those who believe and rely on His word.

1. 진심으로 기도한다

진심으로 부르짖는 시인에게 응답과 구원이 왔습니다. '내게 응답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고난 중에 전심으로, 진실로, 신중하게 목숨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 Pray sincerely

To those who call on the Lord with their whole heart, they will receive a response and eventually be saved.

"Answer me!" "Save me!" In the midst of his suffering, the psalmist called out to God sincerely and truly when his life was at stake. However, even for those who are not suffering, sincere pray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prayer.

2. 항상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잘 된 성도는 규칙적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2. Pray continually

The apostle Paul sent a letter to the Thessalonian church, "Pray continually!" The psalmist said, "I rise before dawn, cry for help, and my eyes stay open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When Paul said, "Pray continually!" he did not mean that we should pray in every moment, but that we should always keep our daily lives in a posture of prayer. Christians who put this into practice pray regularly to God every morning and night. At the same time, they regularly study God's word.

3. 성경적으로 기도한다

성경 연구를 신중하게 함으로 말씀과 언약을 믿고 기도를 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Pray biblically

By studying the Bible carefully, we believe in God's word and His covenant. Then, when we pray, we are able to approach God.

4. 믿음으로 기도한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 연구에서 개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 감지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이들은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4. Pray faithfully

A Christian's power comes from believing in God, as their faith develops from Bible study. We can perceive God's presence through the Bible, and by gaining a freedom from fear, we can grow strong in the faith. Those who stand upon God's word are strong.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보장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정해지시어, 시간 세계에 오시어 속죄의 대업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Conclusion

Nothing is more secure than being in Jesus Christ.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 decided to deliver us from sins. He sent His Son to enter into time and into our world to accomplish the great achievement of atoning for our sins. We should inscribe this truth in our mind and solidify our faith, so it cannot be shaken.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앞에서나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The only way we can fulfill this goal is by studying the Bible while we pray. Whenever God's people are confronted with enemies or trials, they should be the kind of people who are grounded on the Bible, and therefore unshakeable.

당신은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단히 성경 연구를 하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서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Do you realize how valuable the Bible is? By studying the Bible continually and praying according to God's word,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a people of God and a people of the Bible who are not shaken by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 사명자대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09년 사명자대회」가 오늘 자정을 기해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우리교회는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 에 동참하고 신앙을 돈독히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50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는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두 번 성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함께 기도하는 열열이 기도(다니엘 기도), 태신자를 작정하여 깊은 기도와 정성으로 양육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태신자 초청주일,성경암송대회, 그리고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가 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함께 배포된 50일 연속기도회에 본인의 명단을 확인하고 맡은 시간을 책임 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아가페타운 Opening 감사예배

10월10일(토) 오전10시 아가페타운 자유의 집에서 오후에는 스테반회 체육대회 열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호산나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해 온 아가페타운이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opening감사예배를 10월10일(토) 오전10시 아가페타운 자유의 집에서 드린다.

아가페타운 Opening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교구별로 신청하여 오늘(10월4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차편과 점식식사는 각자 책임 하에 준비한다.

한편, 감사예배를 마친 오후에는 스테반회 초청으로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함께 하는 스테반회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임훈규 장로
(사명자대회 본부장)



매년 교회의 생일을 축하 하기 전 우리는 먼저 사명자대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올해는 아가페 타운 오픈을 앞두고 사명자대회 발대식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만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 이 날까지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해 온 서울 교회가 이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아가페 타운을 설립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온 성도들의 기도 열매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섬겨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질 50일 간의 기도의 대장정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사회를 광명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됩시다. 우리의 조국을 믿음과 화평과 자유의 국민으로 이끄는 민족의 구원선이 됩시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시다.

호산나 大學(學敎) 校歌

♩ = c. 108 박격하며 은혜스럽게

이종윤 작사
박정선 작곡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1. 저 푸른 한강 수 유유히 흐르고, 2. 산 처럼 겸손히 고 불켜린 은유하며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정 우 산 언덕이 능뿔이 돌렸네, 대 처 럼 관개시 시 힘 겨게 살리라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믿음 소망 사랑은 가슴에 품고, 믿음 소망 사랑은 가슴에 품고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해 처럼 자유하라, 비 주리 영광일세 호산나, 호산나 영광일세 호산나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후렴) 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part of the Hosanna University hymn. Lyrics: 아 우리들의 호산나 대학교

호산나 대학「교가」 발표되다

호산나대학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종윤 목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교훈으로 정하고, 교가는 이종윤 목사의 작사에 박정선 장로가 곡을 붙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순례자 편집부에서는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작사·작곡의 배경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종윤 목사는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구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서울교회 예배당 헌당식 날 우리는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신설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교회 창립 초부터 부르짖던 사랑의 집 건립 계획을 실천키로 했습니다.

나는 호산나 대학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 생명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물었습니다. 푸른 한강수와 우람한 청우산이 호산나대학을 감싸듯이 하나님 신앙,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 이웃을 사랑하므로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도들의 요람 호산나대학 되기를 기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박정선 장로는 "이곡을 작곡함에 있어 작사하신 이종윤 목사님의 깊은 뜻을 내포한 교가 가사의 뜻을 살려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두 악절은 호산나 대학이 위치한 지리적 배경(1절)과 호산나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가짐(2절)을 담은 내용으로 아름다운 정경과 마음의 각오를 나타내는 기억하기에 쉬운 선율로 작곡하였습니다.

셋째 악절에서는 호산나 대학의 교훈인 믿음·소망·사랑을 아름답고 사랑이 느껴지는 선율로 표현하였으며, 넷째 악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드리고자하는 강한 실천의지를 소리 높여 나타내었고 후렴의 두 악절은 호산나 대학의 각오와 비전을 힘차게 노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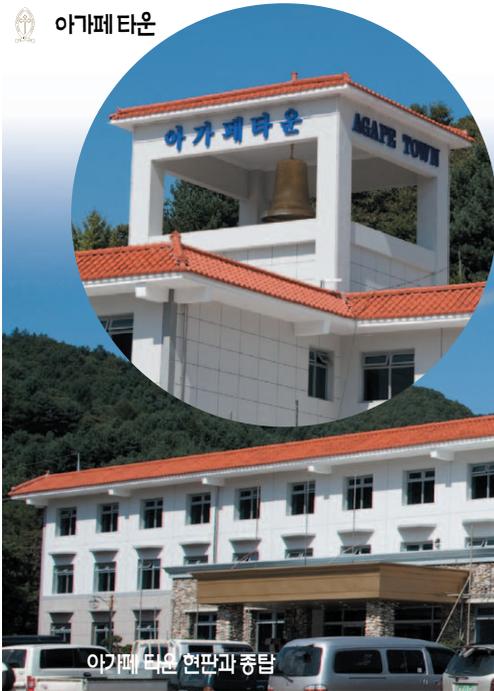
수요 어린이예배 추석 송편 만들기



지난 30일(수) 수요어린이예배에서는 추석을 맞아 송편만들기를 2부순서로 진행하였다.

아가페타운

아가페 타운, 이렇게 변했다



아가페 타운 현판과 종탑



본관(사랑의 집) 사무실 및 강의실

10월 10일 오픈 감사예배를 앞두고 있는 아가페 타운 이 외부는 물론 내부를 단장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호산나 학교가 사용할 사랑의 집은 이제 거의 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무리를 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의 집 1층 오른쪽에는 갤러리, 소집회실이, 맞은 편엔 행정실과 상담실 등이 있고, 2층은 강의실, 3층은 학생 기숙사가 있고, 또 지하엔 깨끗이 단장된 식당이, 식당 측면에는 접이식 문을 달아 뒷동산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관(사랑의 집) 1층 예배실



기숙사(평화의 집) 카페로 꾸며질 1층 로비

평화의 집은 교회 수련회를 참석한 이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는데 입구는 넓은 로비가 카페처럼 꾸며지게 될 것이고, 책상이 달린 개인 침대가 250여개가 있어,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방문자들을 위한 게스트 룸이 나무로 꾸며져 있다. 한편 자유의 집은 다용도 실로 실내체육관, 집회실로 사용될 예정이나 아직 실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본관(사랑의 집) 2층 로비

기존의 노인케어과, 사무자동과에 뷰티케어과와, 서비스학과를 신설 예정인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은 교양학부를 포함 총 3년 과정으로 졸업후 인턴과정은 선택사항이다. 발달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호산나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대학이다.



본관(사랑의 집) 기숙사

교회 설립 이후 빈약한 자 구제를 교회 3대 목표의 하나로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여 이루어낸 아가페 타운, 그러나 우리의 이런 희망적인 마음과는 달리 아가페 타운 설립의 선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 아쉬울 따름이다. 선진국을 가늠하려면 그 나라의 복지정책을 보라고 했는데 장애인 최초 대학인 호산나 학교를 세우는 일에 목적도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모습에 우리의 더욱 뜨거운 기도가 요청될 뿐이다.



기숙사(평화의 집) 3층 게스트 룸

체육관(자유의 집) 외관



체육관(자유의 집) 내부



본관(사랑의 집) 세면장 및 샤워장



아가페타운 open

아들 따라 왔어요

이성명 성도(12교구)



아들 창훈이가 다닐 아가페 타운의 호산나 대학을 따라 울산에서 청평으로 이사온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단순 교통 사고로 인해 창훈이는 지적 장애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특수 학급이었지만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아들의 진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복지관에는 보내기 싫었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업 평가를 받기 위해 기관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호산나 홍보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곧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상담한 후 아무런 의심 없이 창훈이를 호산나 전문대로 입학시켰습니다.

3월에 창훈이가 입학하고 뒤따라 우리 가정은 아가페 타운 가까운 청평으로 이사 와서 서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그간도 열심히 신앙생활

활을 했지만 우리 부부는 서울교회에 오고 다시 한번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호산나 학교, 사랑부 선생님들의 진정함 섬김 등을 보면서 그동안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에서 가까이 아가페 타운에 자주 들러 청소도 하곤 하지만 교회에서 거의 매일 성도님들과 호산나 학부모님들이 오시어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이어져 아가페 타운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이번 바자 때 호산나 학생과 선생님들과 또 어머니들까지 힘을 합쳐 물건을 팔고, 돈을 모아 아가페 타운을 위해 헌금한 것도 너무 뜻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산나 대학을 통해 우리 가정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소망을 주시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가페타운 open

우리는 사랑에 빛진 자!

이예원 (중등부 회장)

저희 중등부는 이웃사랑, 탈북난민돕기, 아가페 건립을 위한 2009 열린 바자에 맞추어 연초에 모은 비전 헌금의 일부분인 20만원을 아가페 타운에 바치기로 작정 했습니다. 이는 중등부 친구들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정이며, 주님에 대한 저희의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처음 아가페타운의 조감도를 볼 때만 해도 막연히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로 자세한 청사진을 보고 들으며, 이제 드디어 준공식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이 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작은 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낸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어서, 이렇게 작게라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리지만 저희 중등부에서도 아가페 타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펼쳐질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의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여러 계획 중의 하나인 아가페타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장을 보며 자랄 수 있는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빛진 자들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꿈을 꾸며 실천하는 중등부로 계속 거듭 날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울교회 중등부 사랑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 주일 2부 예배에서 은 빛나는 소리로 찬양 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지휘자 송재월 성도의 독주로 들려진다.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자랑인 핸드벨 콰이어는 송 선생의 지도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한 음향과 아름다운 선곡으로 예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R. H. Prichard) 의 3곡으로 찬양 드린다. 피아노 반주는 조현정 성도가 수고한다.

호산나 대학 서울 잡(JOB)아카데미 참가

지난 2009년 9월 23일(수) ~ 24일(목) 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주관하는 서울 잡아카데미(JOB ACADEMY)가 호산나대학 1학년, 4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601호에서 있었다. 호산나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이력서 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취업교육전문가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면접 전문가들에게 직접 해 보는 한편, 면접관들에게 취업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8일(목) 41차 장로교 정세성 회복위원회를 소집한다. 9일(금)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 김정훈 집사(베들레헴 찬양대) 해외 연주회로 출국(9/29-10/9 미국 LA, Phoenix)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션교회(10.4) 베드로선교회(10.11)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Opening 위하여
3. 2009 사명자대회 통해 받은 사명을 확인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